



고대안산병원뉴스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NEWS

no.51

2015년 03 / 04월

발행인 | 차상훈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 · 전화 | 1577-7516 · Fax | 031)412-5659 · 홈페이지 | http://ansan.kumc.or.kr · 발행일: 4월 30일 (격월간)

새로 단장한 고대 안산병원을 소개합니다!

소화기센터, 내시경센터 확장 오픈 새로운 진료환경 속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소화기센터와 내시경센터를 확장 오픈하며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고대 안산병원은 4월 27일 차상훈 병원장, 이승훈 연구부원장, 송우혁 기획실장, 한창수 교육수련위원장, 소화기내과 구자설 과장, 송효성 경영관리실장을 비롯한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화기센터와 내시경센터 확장 오픈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확장 오픈은 작년 10월부터 뇌혈관·뇌졸중 집중치료실, 암센터, 항암치료전문병동 개소를 시작으로 이어진 '병원 외래 재배치 및 질환별 전문센터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고대 안산병원은 확장 오픈을 통해 천정에 의료기기를 고정하는 실링펜던트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한 진료공간을 마련하고, 최신 장비를 구비하여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시스템을 제공하게 됐다.

차상훈 원장은 인사말에서 "개원 30주년을 맞아 소화기센터와 내시경센터 확장 오픈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욱 쾌적한 진료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며 "점차적으로 '병원 외래 재배치 및 질환별 전문센터화 계획'에 박차를 가하여 지하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이어지는 '윈스톱 진료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안산, 시흥 지역의 주민 뿐 아니라 경기 서남부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소화기센터는 소화기 질환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윈스톱 진료를 선보이고 있다. 기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취담도내시경과 함께 이중풍선 소장내시경, 캡슐 내시경, 내시경 초음파 등 최첨단 장비를 완벽히 구강에서 항문까지 모든 소화관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How to contact 고대안산병원

- 전 화 예 약 - 진료예약센터 : 1577-7516
예약시간 : 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3:00
- 인터넷예약 - 홈페이지(ansan.ku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예약일정이 확정되면 진료일 전날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SMS문자가 발송됩니다.
- 진료협력센터: 031)412-5103 □ 응급의료센터: 031)412-5381 □ 종합건강진단센터: 031)412-5865



고대병원 모바일웹 접속

Contents

2p
도약! 연구중심병원



3p
세계속의 안산병원



4p
단원재난의학센터소식



4p
단원재난의학센터소식



5p
의료진동정



8p
건강정보



도약! 연구중심병원

개원 30주년 기념 '2015 리서치 페스티벌' 개최

차세대 연구혁신병원으로서 산·학·연 기관과 융·복합 연구 지속



지역유일의 3차 의료기관이자 연구혁신병원으로 도약중인 고려대 안산병원이 지역사회 산·학·연 연구협력기관들과 함께 모여 보건의료기술(HT) R&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3월 25일 대강당에서 고려대학교 김우경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국회의원, 윤성균 경기도테크노파크원장을 비롯한 300여 명의 산·학·연·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0주년 기념 2015 리서치 페스티벌-보건의료기술 R&D 클러스터 성공전략'을 개최했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은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 산학연병 중개연구 개념과 사례(고대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병수 교수) ▲ 로봇 R&D현황과 의료/헬스케어 로봇의 미래(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연구실용화그룹장 박상덕 박사)발표를 통해 보건의료기술의 중개·임상연구 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병원역할의 중요성 및 산업부 간호로봇사업 등 기업-병원 연계 로봇실용화 연구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 신약개발 해양후보물질 공동연구 사례(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신희재 박사) ▲ 기업-병원연계 의료기기 R&D 사례(한국전기연구원 융복합의료기기연구센터 이경희 박사) ▲ 한국인인간유전체 코호트 연구사례(고대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난희 교수) 등의 강연으로 보건의료기술 R&D 분야의 최신 지견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해양천연물로부터 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고대 안산병원의 소화기센터와 암센터의 의료현장 수요와 역량을 토대로 한 최첨단영상진단기기, 치료기기의 국산화, 내시경장비의 개발' 등 그간 진행되어온 고대 안산병원과 유관기관과의 보건의료기술 융·복합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우경 의무부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융·복합 연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산·학·연·병 관계자들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세계적인 원천기술 등 보건의료기술의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고대 안산병원과 고대 의료원 연구자들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활동은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의료산업화에 매우 중요한 성장 동력을 제공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차상훈 병원장 역시 개최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거점병원으로서 개원 30주년을 맞은 고대 안산병원은 풍부한 임상연구인력과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을 비롯하여 통합임상시험센터, 인간유전체연구소, 인체유래물은행, 단일재난의학센터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구축하여 차세대 연구혁신병원으로서 그 위용을 갖추고 있다"며 "오늘의 자리가 지역사회 의료기술 분야의 R&D클러스터 구축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연구선진화와 수많은 융·복합 학술교류, 공동연구로 이어져 보건의료기술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경 이사장 - 고대 안산병원 연구자

차세대 국가경제 성장 동력인 보건의료산업 발전 방안 논의



고려대 안산병원 연구자들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경 이사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흉부외과 교수)과 함께 모여 차세대 국가경제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HT, Healthcare technology) 발전을 위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4월 10일 대회의실에서, 고대 안산병원 차상훈 병원장, 이승훈 연구부원장, 한창수 교육수련위원장 등 2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경 이사장의 '차세대 국가경제 성장 동력·보건의료산업(HT)'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참석자들은 미래 첨단산업기술 중 하나인 보건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지원과 대응을 통해 연구와 임상의 경쟁력이 갖추어질 때 선도형 연구혁신병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선경 이사장은 "연구혁신병원이 R&D 플랫폼으로서의 기초연구와 의료현장의 매개가 되어야 보건의료산업의 고속화가 가능해질 것"라며 "연구자들과 전문 행정인력이 협력하여 외부 네트워크 구축과 적극적인 태도가 국책사업 등을 수주하는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 보건의료기술 연구 활성화를 위해 참석해주신 선경 이사장님과 교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고대 안산병원이 연구혁신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병원차원에서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 안산병원은 차세대 연구혁신병원이자 지역사회 의료기술 R&D 클러스터 구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국책과제 컨소시엄 구성, 연구자별 공동연구 추진 등 연구협력에 힘쓰고 있다.

세계 속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국제수준의 의료진 (6)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및 의료기관에서 연구교수, 교환교수, 방문교수,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우수한 의료진들이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최고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약한 안산병원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The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Hope lives here.

장기영 교수 〈소아청소년과〉

대한소아심장학회 정회원
대한심장학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연수기간 2014. 03 ~ 2015. 02

연수내용 선천성 심질환의 치료

전문분야 소아 및 선천성 심장질환

진료시간 오전(월, 목), 오후(화, 목)
*화, 목 오후 - 심장클리닉

 UNIVERSITY OF TORONTO
FACULTY OF MEDICINE

임상엽 교수 〈순환기내과〉

대한고혈압학회 정회원
대한심장학회 정회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연수기간 2013. 03 ~ 2015. 02

연수내용 동맥경화, 관상동맥질환의 치료

전문분야 협심증, 심혈관중재술,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 흉통클리닉

진료시간 오전(화, 금), 오후(수)

건강정보

현대인을 괴롭히는 적, 퇴행성 관절염



특히 다친 기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붓고 통증이 생긴다면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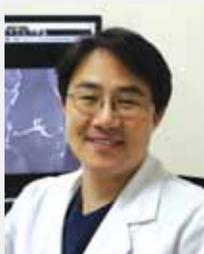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으로 골관절염, 노인성관절염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예전에는 노인에게만 발생한다고 하여 퇴행성관절염으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외상 이후에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골관절염이라는 용어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뼈의 말단 부위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에 변화가 생기면서 연골이 소실되어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면이 거칠어 지며, 주변의 염증 반응으로 관절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절염의 치료는 아직까지 완치가 목적은 아니며, 대부분 증상의 완화와 악화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기나 중기의 퇴행성 관절염은 소염제 등과 같은 약물 치료와 더불어, 연골 주사나 증상이 심할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하지 근력 강화 운동, 달리기 등의 적당한 유산소 운동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말기의 경우는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하지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으로써 통증이 없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중 대부분이 운동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꼼짝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에 좋지 않으므로 잠시라도 짬을 내어 천천히 산책을 하거나 실내에서도 수시로 몸을 늘여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등 하루에 2~3회씩 가볍게 관절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말 |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김재균 교수



정형외과 김재균 교수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 슬관절학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무릎관절(스포츠외상, 슬관절관절경술, 인대재건술, 슬관절인공관절)
진료시간 오전(목, 금, 토) 오후(월) *토요일 교대진료

4·16 세월호 사고 1주기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안전대책 미진한 환경 속 재난의학분야 발전방향 제시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단원재난의학센터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4·16 세월호 사고 1주기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안전대책이 미진한 국내 환경 속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재난에 맞서 펼쳐온 진료와 연구 활동을 소개하고 재난의학분야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4월 9일(목)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고려대학교 김우경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안산시 단원구갑 김명연 국회의원(박찬 비서관 대리 참석),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 이홍재 소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대 안산병원의 진료 과정을 기록한 '4·16 세월호 사고 백서'와 '4·16 세월호 가족 유가족 사례관리 과정' 발표를 통해 재난대비 의료기관의 역할,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의료대응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고대 안산병원 박종태 진료협력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 4·16 세월호 사고 백서 발표(단원재난의학센터 차상훈 센터장) ▲ 재난대비 의료기관의 역할(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응급의학과 문성우 교수) 발표를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이에 대응해온 고대 안산병원의 활동을 정리하고 재난의학분야의 첨병으로서 고대 안산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영훈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 정체성 및 미션(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한창우 센터장)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경과보고(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김수진 부센터장) ▲ 4·16 세월호 가족 유가족 사례관리 과정(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김정렬 가족심리지원팀장)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지역사회의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전문적 심리지원과 통합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김우경 의무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지난 1년간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잘 추진되어 단원재난의학센터와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재난의학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대의료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상훈 병원장 역시 개최사를 통해 "국가적 재난이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시스템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단원재난의학센터와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재난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 대응 체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난의학 분야의 첨병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권위자 초청 강연 실시

재난대응시스템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방법의 국내 상황 적용 도모



고려대 안산병원 단원재난의학센터(센터장 차상훈)는 4월 16일 대강당에서 일본 국립 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요시하루 김(Yoshiharu Kim)박사를 연자로 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부터의 회복'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서 요시하루 김 박사는 트라우마의 증상과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유병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종류와 이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 세계적인 사례와 함께 상세히 소개했다

요시하루 김 박사는 "대부분의 트라우마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회복되는 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연적 회복의 실패로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질환"라며 "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안전하게 마주하는 '노출요법'을 통해 잘못된 인지상태를 수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라고 조언했다.

차상훈 단원재난의학센터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강연을 통해 단원재난의학센터는 많은 재난경험을 통해 축적된 일본의 재난대응시스템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방법에 대해 간접경험하고,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 재난의학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요시하루 김 박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분야의 권위자로 현재 일본 국립 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성인정신보건부장을 맡고 있다.

안과 교수진, 대한안과학회서 학술상 수상



고려대학교병원 안과 의료진들이 대한안과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며 수준 높은 연구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엄영섭·송종석·김효명 교수팀과 이화·백세현 교수팀은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안과학회 제113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 고려대병원 안과 이화·백세현 교수팀은 '원발성 후천코눈물관폐쇄와 기능적 코눈물관폐쇄 환자의 눈물주머니의 아쿠아포린 발현 양상'이라는 논문으로 수상했다. 이는 성인에게 흔히 눈물흘림을 야기하는 두 가지 질환에서, 눈물주머니 조직을 이용하여 선택적 물 이동 통로로 작용하는 막단백질인 아쿠아포린 수용체 발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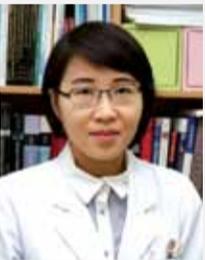
이화 교수는 "대한안과학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을 두 번이나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태수 교수님과 백세현 교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대병원 안과가 국내 성형안과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려대병원 안과 엄영섭·송종석·김효명 교수팀은 '아쿠아 ICL(후방인공수정체)의

중앙부 구멍에 의한 고리모양 이상광시증 양상 분석'에 관한 연구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중등도/고도근시 환자의 근시교정을 위해 사용되는 아쿠아 ICL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광시증(눈을 좌우로 움직일 때 번쩍이는 불빛이 보이는 증상)을 광학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재현하여, 그 양상과 원인을 밝혀냈다.

엄영섭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에리조나주립 대학교 광학대학,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우주광학연구실이 함께 진행한 첫 번째 공동 연구를 통해 학술상을 받게 되어 뜻 깊다. 앞으로도 안과의 광학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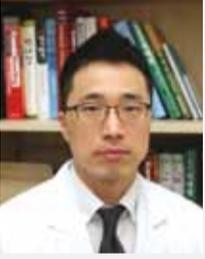
한편, 엄영섭·송종석·김효명 교수팀은 지난 2월 16일(월)~19일(목), 일본 요코하마 요코하마퍼시픽에서 개최된 'ASIA-ARVO (Association for Research in Vision and Ophthalmology, 미국 안과 및 시과학회) 2015 학회'에서 두 편의 포스터를 발표하여 Travel grant를 수여받았다. 또한, 이화·백세현 교수팀은 '제103회 대한안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제104회 대한안과학회학술상 비디오상' (2010년), '제105회 대한안과학회학술상 포스터상' (2011년)을 수상한 바 있으며, 연구와 학술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안과 이화 교수

대한안성형학회 정회원
대한안과학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성형안과, 백내장
진료시간 오전(월)오후(월,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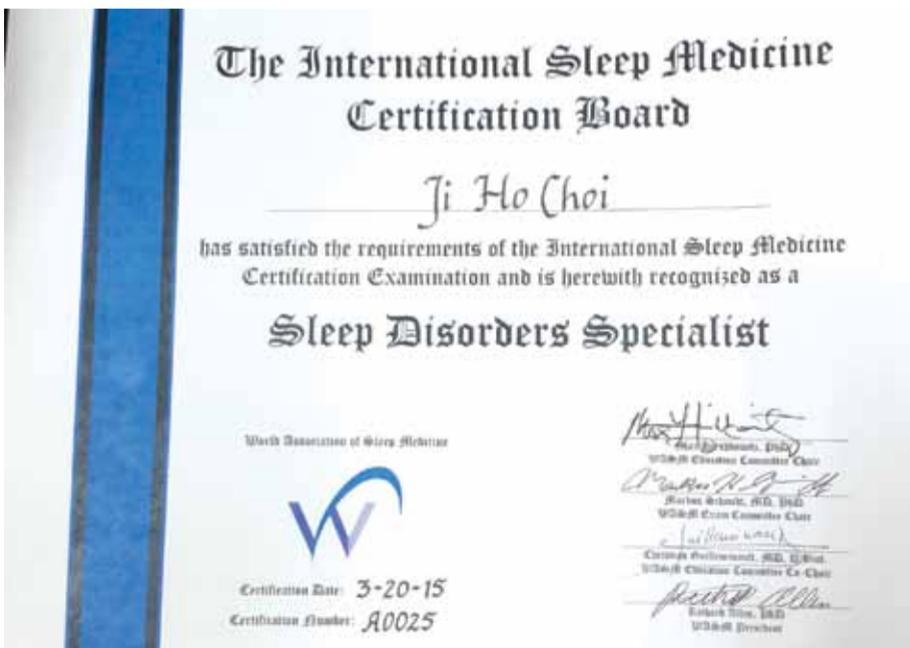


안과 엄영섭 교수

대한안과학회 정회원
한국외안부학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각막질환, 백내장,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진료시간 오전(수)오후(월, 수)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 국내 최초 세계수면학회 수면 질환 전문가 자격 취득



고려대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가 3월 20일 세계수면학회(WASM)에서 시행한 '국제 수면의학 인증시험'에서 국내의사 최초로 합격해 '수면질환 전문가(Sleep

Disorders Specialist)' 자격을 취득했다.

최지호 교수는 2006년 미국수면학회 '미국수면의학전문가(ABSM) 자격시험'에 국내의사 중 최연소 합격 및 2007년 '미국공인수면전문가(RPSGT) 자격시험'에 국내의사 최초로 합격한 바 있으며, 이번 세계수면학회 '수면 질환 전문가' 자격 취득을 통해 수면의학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로서 역량을 다시금 인정받았다.

한편, 세계수면학회에서는 작년부터 국제적인 수면의학 전문가를 인증하기 위해 기초 수면과학, 수면의학 관련 진단 및 표준지침, 임상실무 등 수면의학에 관한 전 분야를 평가하는 국제 수면의학 인증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

국제비과학회 정회원
미국수면학회 정회원
대한수면학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전문분야 부비동염(축농증), 수면무호흡증,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진료시간 오전(화, 금)오후(월)

단신

호텔인터불고 안산과 MOU 체결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과 호텔인터불고 안산(Hotel Inter-Burgo Ansan, 사장 장진익)이 4월 27일 고대 안산병원 차상훈 원장과 호텔인터불고 안산 장진익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의료관광 활성화는 물론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차상훈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고대 안산병원은 수준 높은 기술력과 고려대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양 기관이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국제의료관광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고대 안산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호텔인터불고 안산 이용시 객실이용 및 식사를 비롯한 결혼식 및 돌잔치 행사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호텔인터불고 직원들에게는 병원 진료 시 선택진료비 및 건강검진에 대한 감면을 제공한다. 앞으로도 고대 안산병원은 진료 협력센터를 통해 국제의료관광 사업 및 지역사회 상호교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한국얀센과 신약개발 공동연구 연구자간 교류회 개최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3월 19일 한국얀센(JanssenKorea)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고대안산병원 - 한국얀센 신약개발 관련 연구자간 교류회’를 개최하고 신약개발의 연구에 대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교류회는 고려대 안산병원과 한국얀센이 경비 항우울제인 에스케타민(ESKETAMINE)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한 자리로 고대 안산병원에서는 이승훈 연구부원장, 정신건강의학과과장 한창수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윤서영 교수, 김태희 연구디자이너 등 10명이 참석했고, 한국얀센에서는 Jaskaran Singh 연구디자이너, Gerard Ong 아시아총괄매니저, 이계향 임상연구매니저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에스케타민 공동연구는 세계적 제약회사인 얀센에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한국에서는 신약연구 파트너로 고대 안산병원이 선정되어 신약개발의 임상시험을 맡아 진행 할 예정이다. 교류회는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 소개 및 연구협력분야 프리젠테이션 후 팸투어를 통해 고대 안산병원의 연구시설을 함께 견학했다. 이승훈 연구부원장은 “두 기관이 신약개발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인류에 공헌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 위한 건강강좌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 재활의학과 김동휘 교수는 4월 21일 시흥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비전하우스’를 방문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주간 건강강좌 : 삼킴장애’를 실시하고 거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 나섰다.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주최하고 고대 안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주관한 이번 강좌는 삼킴장애를 주제로 삼킴장애의 증상에 대해 배우고 일상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재활치료법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실제 김동휘 교수가 치료한 비전하우스 거주민의 비디오시연하검사 영상을 바탕으로 한 강의로 거주민들의 이해를 도와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휘 교수는 “삼킴장애는 심할 경우 폐렴이나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므로 생활 속에서 적절한 식이 또는 적절한 식이 방법 변경을 통해 삼킴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이번 건강강좌가 비전하우스 거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대한재활의학회에서는 4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를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주간’으로 선포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 진료 및 건강 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

2015년 간호사회 정기총회 개최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부장 이경진)는 3월 30일 대강당에서 최병민 진료부원장, 김운영 적정진료관리위원장, 송효성 경영관리실장을 비롯하여 16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안산병원 간호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1부에서는 이경진 간호사회 회장의 개회사와 최병민 진료부원장의 축사 및 모범간호사 포상, 한국간호사 윤리선언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2014년 간호부 업무보고, 사업결과 보고 및 2015년 사업계획 발표와 2015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교육체계 등 간호부 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경진 간호부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14년은 3개 병동 오픈, 외래 리모델링 오픈, 의료기관 재인증 획득,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등 큰 일들이 많았다. 안산병원이 성장을 거듭해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 하나가 큰 힘이 되고 있다. 2015년은 안산병원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여러분과 병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해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최병민 진료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1985년 개원 이래 항상 환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문화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간호부 직원의 노고로 안산병원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숭고한 간호인의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안산병원 간호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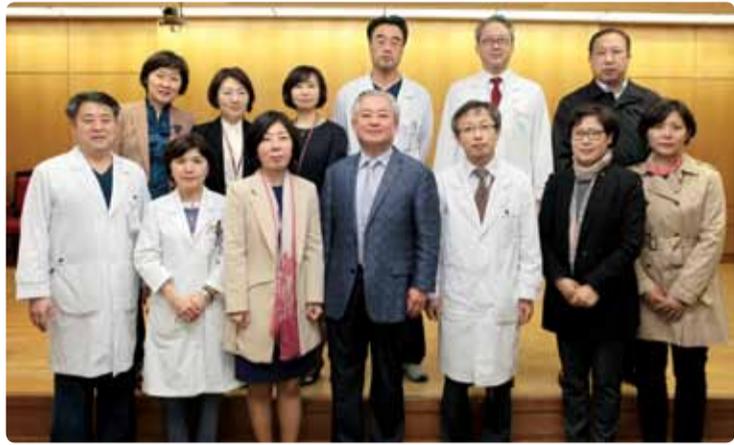
'국제해양재난안전포럼' 참가



고려대 안산병원 (원장 차상훈) 정신건강의학과 고영훈, 한창우 교수는 4월 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국제해양재난안전포럼 · Safe world, Safe Ocean, Safe Life' 에서 세 번

째 세션인 'Human Ocean' 에 참여해 해양재난사고 이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고영훈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Human Ocean' 세션에서는 ▲재난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일본 국립 신경학·정신건강의학센터 요시하루 김 박사)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세월호 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관리(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한창우 센터장) ▲한국 해안의 원격응급의료시스템(가천대 길병원 임용수 교수)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고영훈 교수는 "고대 안산병원은 세월호 생존학생 및 유가족들의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관리를 도맡아온 의료기관으로서 국제해양재난전문가들과 함께 해양재난에 대한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종합정보서비스 설명회 개최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3월 31일 대강당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종합정보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의료기관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적정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전 예방적 기관관리' 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학주 상근위원, 권연선 부장, 권희정 차장, 하재임 과장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대 안산병원의 일반현황, 청구 및 심사현황, 고가도 지표 현황, 사후결과 현황, 기타 정보 등을 공유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만들어주신 심평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대 안산병원 전 직원들이 적정진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 고등학생 초청 취업 멘토링 실시



고려대 안산병원 (원장 차상훈) 의료정보팀은 3월 5일 지역사회 참여의 일환으로 단원고등학교 교사, 학생과 함께 '취업 멘토링' 을 실시했다. 장래 희망이 의무기록사

인 학생 2명과 지도교사는 고대 안산병원 의료정보팀을 방문해 의무정보팀 이은경 팀장, 강주희 부팀장으로부터 의무기록사 업무 소개와 역할, 향후 전망, 취업 정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선배 의무기록사로서 조언 및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 교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멘토링 인터뷰를 마치고 난 학생들은 "이번 취업 멘토링은 다시금 의무기록사라는 꿈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된 좋은 계기"라며 "막연했던 목표에 대해 방향 설정과 자기계발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주신 의료정보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앞으로도 고대 안산병원과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속적인 멘토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인술 실천을 위한 의료봉사단 발대식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4월 29일 대회 의실에서 개원 30주년을 맞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료봉

사단 발대식' 을 갖고 사회공헌을 위한 인술의 실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상부위장관외과 김승주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고대 안산병원 의료봉사단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행정직 등 총 65명의 교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 지원이나 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의료봉사단 발대를 통해 필요시에 일시적으로 조직되던 기존의 의료봉사단 형태에서 벗어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의료봉사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30년 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고대 안산병원이 인술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의료봉사단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간호부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계획 발표회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부장 이경진)는 3월 4일 '2014년 사업결과 보고 및 2015년 사업계획 발표회' 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간호부 제위원회를 포함한

27개 부서가 '2014년 사업결과 보고 및 2015년 사업계획' 을 발표했다. 이경진 간호부장은 "올해는 안산병원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라며 부서 사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 부서마다 병원 발전을 위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부서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안산병원 간호부 2015년 슬로건 '함께이룬 30년, 함께가자!!! 미래로' 를 발표했다.

친절리더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3월 13일 점심 시간 직원식당에서 화이트테이를 맞아 초콜릿과 사탕을 전하

는 행사를 통해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상훈 원장, 이경진 간호부장과 5기 친절리더팀원들이 직원식당을 찾은 교직원들에게 직접 초콜릿과 사탕을 나눠줬고, 식사를 하러온 교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5기 친절리더팀에서는 내부 직원 자존감 증진을 위해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친절주제를 '전화로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귀에서 이유 없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이명을 의심해봐야

원인 찾아내어 적절한 치료하는 것이 중요



이명이란 외부의 소리 자극 없이 환자 자신의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한쪽 또는 양쪽 귀에서 웅웅거리는 등의 단순한 소리가 들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명은 동반증상 없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난청, 어지럼증, 귀가 꽉차고 먹먹한 느낌의 이충만감, 전신의 피로감 등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 환자만 느끼는 이명이 대부분... 청각세포 손상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

이명은 환자의 청각기관 자체에서 발생하여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환자만이 느끼는 주관적 이명이 대부분이며, 환자가 느끼는 이명을 다른 사람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객관적 이명도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 이명은 대체로 귀 주위의 혈관장애, 근육의 경련, 이관운동장애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이명은 증상이지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며, 원인을 찾아내어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객관적 이명의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주관적 이명의 경우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주로 내이의 청각세포와 신경의 손

상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명과 함께 청력 손실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각세포의 손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는 소음, 노화, 약물(항생제, 항암제, 아스피린, 이노제), 중이염, 당뇨 등과 같은 대사성 질환, 면역질환 등이 있으며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한 주관적 이명에는 메니에르병, 이경화증과 같은 다른 질환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질환을 치료하면 이명도 함께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드물게는 두경부의 동맥류나 동정맥기형, 청신경종양이나 뇌종양 같이 중한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원인 밝혀 치료하는 것이 우선, 원인에 따라 다양한 치료

원인이 규명된 이명은 원인의 제거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찰, 청력검사, 이명도검사, 평형기능검사, 영상검사 등을 적절히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진단해야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나운찬 교수는 "이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일차적으로 이명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약물 치료와 함께 이명 차폐기, 보청기 착용 등의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운찬 교수는 "이명 재훈련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이명을 불편하게 느끼는 데에는 이명 소리 자체 보다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서적, 감정적 반응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명 재훈련 치료는 이명을 의미 없는 자연스러운 소리로 인지하도록 신경회로망을 재편성하고 중요한 소리와 구별하도록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경두개 자기 자극술 등과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어 추후 이명 치료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비인후과 나운찬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정회원
대한이과학회 정회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난청, 만성중이염, 어지럼증, 이명, 안면마비
진료시간 오전(목) 오후(월)

30th
행복의 가치 나눔의 가치
지역주민과 같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개원 30주년

지난 30년간 지역주민과 함께 했듯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를 선도하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병원